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 혜 전**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 취업욕구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가설모형을 확정하는 데 있다. 그를 위해 LISREL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노령 장애인 집단과 비교집단(비장애노인 집단, 50세미만 장애인 집단)간의 차이를 밝혔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추출된 가설적 이론모형을 연구가설을 세워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척도들 간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취업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모형을 집단별로 검증한 결과, 노령 장애인 집단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9개의 연구가설중에서 7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결정 및 서비스에서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노령 장애인, 취업 및 재취업욕구 요인, LISREL, 공변량 구조분석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생애주기(life-cycle)의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이다. 통계청은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14.3%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551-B00039).

** 교신저자(haejeon7@hanmail.net)

1960년에 52.4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77.9세로 증가하여 40년간 평균수명이 25.5세나 늘어났다.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은 계속될 전망으로 2010년에는 79.1세, 2030년 81.9세로, 그리고 2050년에는 83.3세로 추계된다(보건복지부, 2005). 그리고 연령에 동반한 장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노령 장애인의 수도 크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비율의 성장과 다양성은 노인그룹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두 개의 용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노동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 하기도 할 것이다. 이런 노인들은 보다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만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적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장애의 발생 또한 고용이나 대인관계, 그리고 경제적 독립의 측면에서 이전 활동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좌절과 절망의 느낌에 이를 수 있다. 생애후기에 발생한 장애나 노령 장애인은 연령에 수반되는 신체적 변화와 역할 변화에서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들의 취업 및 재취업은 노년기 사회화에 있어 소득보장과 역할 확보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유지라는 주관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은 가정에서의 고립된 생활보다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삶의 보람을 찾게 하고 사회발전에 생산적인 일원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노인자신들도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배우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지원체계의 미비로 재취업과 적극적 사회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의료기술과 재활의 발전은 장애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직업가능성을 새로이 열어 주었다. 따라서 장애를 지닌 노인은 재활에서는 새롭고 중요한 소비자 계층이며 강력한 욕구집단의 일부로 묘사되고 있다(Rancho Los Amigo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2001). 생애후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과 노령 장애인 삶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성취를 촉진시키는 재활전문성은 더욱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몇 법률에서 노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 노인의 활동을 돕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도 기회와 독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된 1992년 재활법과 1998년 재활법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990년의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은 주-연방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형식의 잠재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0월 29일 개정된 재활법에 사인을 하였다. 1992년 재활법 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되는 장애인에 대한 확장된 재활상담사의 실제적인 함의와 많은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Larkin,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은 2,148.7천명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50세 이상의 경우는 1,330.6천명으로 그 비중은 61.9%이며, 45세 이상 장애인은 1,554.2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2.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중도장애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년기 사회화역할에서 중심이 되는 노령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취업 및 재취업 욕구는 개인을 둘러싼 개인내적 요인과 개인외적 요인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수준, 심리·사회적지지, 노동의욕, 직업준비라는 개인을 둘러싼 개인내적 변인들을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노령 장애인 개인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초점을 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노령 장애인 각 개인의 내적부분에 초점이 두어져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노령 장애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취업욕구를 측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가지 취약성을 지닌 노령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변화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건강, 심리·사회적 지지, 노동의욕, 직업준비를 구축으로 한 취업 및 재취업 욕구 검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향후 노령 장애인의 취업과 정책적 제안 수립에 참고자료가 되어 노령 장애인의 독립과 재활 및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요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며,

둘째, 각 요인별(건강 요인, 노동의욕 요인, 심리·사회적 지지요인, 직업준비 요인, 취업욕구 요인) 수준에 대한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설 모형을 수립하여, 가설검증을 통한 취업욕구 변인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집단별 연구가설 모형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노령화(aging)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의 주제로 소개된 “Successful Aging”이 우리나라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공적 노화 또는 성공적 노후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김미혜, 신경림, 2005). “Aging”은 사전적 의미로는 “나이를 먹는 것”이고 “노화”로 번역된다. Aging은 본래 감퇴(decline), 변화(change), 발달(development)의 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Vaillant & Mukamal, 2001). 생물학적 관점에서 쓰이는 노화란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등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불가피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 즉, 성숙기 이후의 생체기관이 감퇴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발달학적 관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동안 인간의 발달은 지속되고 있으며, 노화는 인간발달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획득(gains)과 손실(losses), 인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Sigelman & Shaffer, 1995).

노인 혹은 노령 근로자의 나이를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은 아주 다양하다. WHO는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65세를 그 시작점으로 하였다.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서는 40세나 그 이상의 연령으로부터 연령차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 표본을 세울 때에 미국 인구센서스(US Census Bureau)에서는 55세를 고령자(the elder) 인구 집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65세 이상을 노인(the older)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40세를 고령자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또한 연대적 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거하여 접근한 것이다. 직업훈련파트너십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에서는 55세를 고령 근로자로 표시하고 있다. 지역중심 프로그램은 45세에서부터 그리고 60세 그리고 그 이상의 집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퇴직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은 61세부터 시작하며, 미국 ADA에서는 퇴직연령은 70세로 정하고 있다(Norman, 2003).

Myers(1998)에 의하면 연령주의 현상은 연령에 기초한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이다. 연령주의는 본질상 인종적 차별주의, 남성 상위주의, 무능주의와 거의 유사하다. 연대적 연령으로 “노령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능력에 의해 “노령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연령은 사회적 규준, 행동과 태도, 그리고 개인의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상황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개념에서 연령은 상호교환적인 과정이

며, 다른 개인들, 환경, 조직간의 역할을 통해서 정의되어진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태도와 신념에 의해 정의되어진다. 전통적인 이해는 연령에 의존해서 상대적으로 획일적이며, 보편적이며,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능력에서 쇠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연령과 관련해서 분명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것은 노령 근로자 사이의 개인적 차이는 연대적 연령보다는 개인이나 상황적 요인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작업 수행력 연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생애후반기에 장애를 지닌 노인을 John Finch와 Mona Robinson은 노동력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연구하고 있다. 노인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확인하고 재활전문가들이 고용이나 다른 삶의 영역에서의 최대한의 조정을 촉진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또 생의 후반기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노인의 연구가 권고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Harley, 2003).

2.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의 예측변인들

1) 건강

노인의 일과 건강과의 인과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Irene, 2001: Maarten & Marce, 1999)은 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ete와 Schultz(2002)는 종단연구를 통해 건강이 노인의 노동참여 여부를 좌우하기보다는 노동참여 여부가 노인의 건강상태를 결정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또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년층이 직업이 없는 노년층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연구결과(Abramson et al., 1992)나 평균수명이 14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된 우리나라의 연구(박상철, 2002)는 일이 노인의 건강에 매우 유효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건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노년기 일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까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irowsky와 Hu(1999)는 만성질환이나 기능적 장애가 경제적 어려움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며,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혜봉, 윤인진(2005)은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노년기에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이탈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심리·사회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집합체(Kaplan, 1974: 류진혜·김태성 1998에서 재인용), 자신이 사랑과 돌봄을 입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며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의무의 일원이라고 믿게 하는 정보의 구성요소(Cobb, 1979; 류진혜·김태성 1998에서 재인용) 또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으로서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Norberk et al., 1981; 류진혜·김태성 1998에서 재인용)등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가족원의 지지도는 노인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인수, 2004). 가족원의 지지는 노인이 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된다. 또한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동기 및 직업활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Bosse 등 (1987)은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심리적 증상을 비교한 결과, 취업노인이 비취업 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즉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는 정신건강, 결혼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활동 참여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망을 유지하는 노인은 고립된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Beatty & Burroughs, 1999; Riddick, 1985).

여성노인의 재취업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Choi(2001)는 고용 자체가 생활만족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자원이 생활만족의 잠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노인의 경제적 보장이 가능한 직업활동 참여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적 복지감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Mutchler et al., 1999; Mutran et al., 1997; Reites et al., 1996). 또한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생산적 활동의 유형에 영향을 받으며, 생산적 활동 중 화폐소득과 같은 생활자원의 생산성이 높은 직업활동은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윤순덕, 2004). 따라서 심리·사회적 지지는 취업 및 재취업 욕구와 관련된 중요한 예측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동의욕 및 업무역량

노령 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대한 박혜전(2003)의 조사결과를 보면 노령 장애인의 67.6%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취업을 하게 될 때의 근무 가능 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5일 이상 근무가능이 4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노령 장애인은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령 장애인의 업무역량이나 노동의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연구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취업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근로동기에 대한 좌절감이나 수치심을 일으켜 근로동기를 상실케 하는 등 적절치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김동배, 2003).

변재관, 전학석(1997)의 연구를 보면 장애노인은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된 장애인고용촉진법률 및 의무고용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91.8%, 89.6%씩으로 나타났다. 직업수련을 이수한 경험도 거의 대부분이 없었으며, 따라서 자격증 소지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직업준비

Rowe(1995)는 직업준비도(work readiness)를 어떤 식으로든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용, 유용한 직업, 가치 있는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preparedness)와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고용준비(employment readiness)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고용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생산활동에 의해 경제적인 성과를 얻는 장소로서의 직업사회에 참가할 때 요구되는 개인의 심리적·행동적인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장창엽, 1996).

이달엽(1997)이 정의한 직업준비도(job readiness)는 개인이 특정한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혹은 종사할 수 있는 기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으로서의 기술행동과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직업배치여부나 구직기술 훈련과 같은 직업배치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고용가능성이란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 직업인성 등을 내담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노력이다. 직업준비도는 특정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 고용가능성의 평가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일차적인 목적을 고용에 두고 직업재활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내담자가 경쟁 고용시장의 유급직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가능성의 결정에 초점을 둔다(이달엽, 1997).

직업준비는 직업에 대한 이해, 교육 기회, 고용 기회 등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구성요인이 된다.

5) 취업 및 재취업 욕구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는 삶 전반에 걸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로서 인식되고 검토되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웰빙(Murphy & Williams, 1999; Zaura, Beier, & Cappel, 1977)으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Dijkers, 1997; Felce & Perry, 1995; Zhan, 1992). 삶의 질의 폭넓은 정의는 활동의 자유, 삶의 목적의 의미,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본능적(self-preservation) 또는 통합, 혹은 일의 성취, 사회적/레크리에이션 삶, 가족, 신체적 물질적 웰빙을 포함한다(Felce & Perry, 1996; Flanagan, 1978; Murphy & Williams, 1999).

삶의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되어져 왔으며 다양한 배경에 적용되어져 왔다. 삶의 질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면 둘 다를 정의해왔다(Bishop, 2005).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두어왔다. 거기에는 고용상태, 수입,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지원 네트워크와 같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포함한다(Bishop & Feist-Price, 2001).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QOL)의 적은 부분만을 측정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Diener et al., 1999) 그것들은 객관적인 지표와 전반적인 웰빙, QOL, 생애만족, 또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주관적 지표사이에 적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을 고령자,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직업재활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50세 이상의 장애인과 50세 이상의 비장애 노인, 50세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였다. 지역적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기관(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활동 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장애인기관 총 250곳과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200곳 총 4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450개의 기관을 지역, 구, 동으로 균집추출을 실시하였다. 우선 450개의 기관에 각 4부씩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1차 설문지 발송에서 회답을 보이지 않은 기관에는 2차, 3차에 걸친 재설문 발송 작업도 이루어졌다. 전체 회수된 설문지는 891부(회수율 49.5%)였으나 잘못 응답된 질문지와 누락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784명(총 43.6%)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이론적인 연구내용을 기본 틀로 하여 연구목적에 따른 질문지 형태의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만든 the Longitudinal Stud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gram(2003)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미국 재활서비스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의 발주아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세 개의 도구 Applicant/Client Demographics and Disability Characteristics(Research Triangle Institute, NDA)와 Client Vocational Interests and

Goals(Research Triangle Institute, NDB), The instrument Satisfaction Interview (Research Triangle Institute, NDC)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전문가집단의 자문회의를 통한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및 연구가설 모형

1)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가설적 이론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건강요인, 노동의욕 요인, 심리·사회적 지지요인, 직업준비 요인, 취업욕구 요인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2개, 2개, 5개, 2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각은 다음과 같다. 건강요인은 건강양호와 취업희망으로 구성되었고, 노동의욕은 일에 대한 열망과 일하고자 하는 의향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심리·사회적 지지는 취업적 지지, 적절한 조절,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비정형화와 같이 총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준비는 직업결정 행동과 직업에 대한 이해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취업욕구는 사회에의 기여, 삶과 자신에 대한 향상감, 경제적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개의 측정변수가 도출되었다.

<표 1> 요인들에 대한 문항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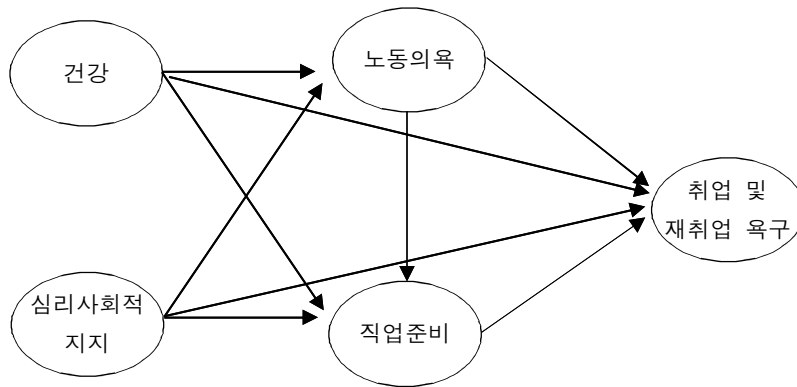
구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문항수)	문항제거
건강	건강양호	3	1, 2, 3	.680	.658 (5) 문항 4
	취업희망	2	5, 6	.604	
노동의욕	열망	8	1, 2, 3, 4, 7, 8, 12, 13	.871	.889 (13)
	취업의향 및 역량	5	5, 6, 9, 10, 11	.730	
심리·사회적 지지	취업적 지지	4	7, 8, 9, 10	.845	.691 (15)
	적절한 조절	3	13, 14, 15	.778	
	정서적 지지	3	1, 2, 3	.650	
	사회적 지지	3	4, 5, 6	.741	
직업준비	비정형화	2	1, 2	.540	.910 (13)
	직업결정행동	7	1, 8, 9, 10, 11, 12, 13	.857	
	직업에 대한 이해	6	2, 3, 4, 5, 6, 7,	.862	

구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문항수)	문항제거
취업욕구 및 재취업욕구	사회에의 참여	7	1, 6, 10, 11, 12, 13, 14	.881	.940 (20)
	자아 향상감	8	2, 9, 15, 16, 17, 18, 19, 20	.906	
	경제적 욕구	5	3, 4, 5, 7, 8	.793	

척도 문항 총 67문항 중에서 요인분석을 위해 건강 4번 문항을 제거한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67개의 문항 중 건강 4번 문항을 제거해서 분석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것은 66문항으로, 5개의 척도들의 하위 구성요인과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다. 전체 신뢰도 계수는 크롬바하 알파 값 $\alpha = .9524$ 이다.

2) 연구가설 모형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섯 가지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건강요인, 심리·사회적 지지요인, 노동의욕 요인, 직업준비 요인, 취업욕구 요인이다. 이 요인들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잠재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찰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된 14개의 측정변인을 제시하였다. 그림1은 다섯 가지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여서 검증하였다.



<그림 1> 척도별 변인에 따른 연구가설 모형

3) 척도별 취업 및 재취업에 대한 연구가설

H1-지각된 건강수준에 관한 가설

H1-1 지각된 건강수준은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지각된 건강수준은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지각된 건강수준은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심리·사회적 지지에 관한 가설

H2-1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심리·사회적 지지는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심리·사회적 지지는 취업 및 재취업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노동의욕에 관한 가설

H3-1 노동의욕은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노동의욕은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직업준비에 관한 가설

H4-1 직업준비는 취업 및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과 LISREL 8.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취업 및 재취업욕구를 구성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 및 재취업 욕구를 구성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도출하기 위하여 LISREL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령 장애인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233명 중 남자가 174명(74.7%)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59명(25.3%)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이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은 기관을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비율이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항목	구분	노령 장애인	비장애 노인	50세미만 장애인
성별	남자	174(74.7)	135(52.5)	194(66.0)
	여자	59(25.3)	122(47.5)	100(34.0)
	계	233(100.0)	257(100.0)	294(100.0)
연령	50대	126(54.1)	39(15.2)	20대-95(32.3)
	60대	84(36.1)	112(43.6)	30대-101(34.4)
	70대	23(9.9)	86(33.5)	40대-98(33.3)
	80대	해당없음	20(7.8)	해당없음
	계	233(100.0)	257(100.0)	294(100.0)
교육수준	무학	25(10.7)	25(9.8)	20(7.1)
	초등졸	53(22.7)	43(16.8)	31(11.0)
	중졸	69(29.6)	73(28.5)	61(21.6)
	고졸	35(15.0)	27(10.5)	68(24.1)
	전문대졸	18(7.7)	41(16.0)	50(17.7)
	4년제 대학졸	25(10.7)	35(13.5)	44(15.6)
	대학원 졸업 및 수료	6(2.6)	12(4.7)	8(2.8)
	계	231(99.1)	256(99.3)	282(99.0)
결혼상태	기혼	175(75.1)	173(67.9)	78(26.6)
	별거, 사별, 이혼	35(15.2)	81(31.5)	10(3.4)
	미혼	20(8.6)	3(1.2)	205(70.0)
	계	230(98.9)	257(100.0)	293(99.6)

연령별 특성은 50대가 126명(54.1%), 60대가 84명(36.1%), 70대가 23명(9.9%)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9.52세이다.

비교집단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비장애 노인은 전체 응답자 257명중 남자가 135명(52.5%), 여자는 122명(47.5%)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5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 294명 중 남자가 194명(66.0%)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100명(34.0%)이었다.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노령 장애인의 경우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6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노령 장애인의 경우 80대가 한 명도 없는 반면 비장애 노인의 경우에는 80대가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 노인의 평균연령은 67.77세이다.

조사결과 노령 장애인의 경우 60세 이상이 64%이며, 비장애 노인의 경우 60세 이상이 84.9%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평균연령 신장을 증명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0세미만 장애인은 조사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95명(32.3%), 30대가 101명(34.4%), 40대가 98명(33.3%)으로 전 연령에 걸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4.68세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노령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가 112명(48.1%)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 보장비 28명(12.0%), 장애연금 20명(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항목	구분	노령 장애인	비장애노인	50세미만장애인
현재직업 유무	있다	52(22.3)	81(31.5)	160(54.4)
	없다	180(77.3)	175(68.1)	134(45.6)
	계	232(99.6)	256(99.6)	294(100.0)
최근 1년간 일	했다	88(37.8)	98(8.1)	170(57.8)
	하지 않았다	144(61.8)	151(58.8)	122(41.5)
	계	232(99.6)	249(96.9)	292(99.3)
의료비용	5만 미만	43(18.5)	59(23.0)	26(8.8)
	5만이상-10만미만	29(12.4)	52(20.2)	12(4.1)
	10만 이상	63(27.0)	67(26.6)	49(16.7)
	계	135(57.9)	178(69.3)	87(29.6)
지원받는 금액	50만 미만	66(28.3)	60(23.3)	58(19.7)
	50만이상-100만미만	11(4.7)	18(7.0)	8(2.7)
	100만 이상	5(2.1)	20(7.8)	3(1.0)
	계	82(35.2)	98(38.1)	69(23.5)
취업기간	5년 미만	34(14.6)	14(5.4)	120(40.8)
	5년이상-10년미만	30(12.9)	19(7.4)	47(16.0)
	10년이상-15년미만	20(8.6)	22(8.6)	29(9.9)
	15년이상	94(40.3)	121(47.1)	10(3.4)
	계	178(76.4)	176(68.5)	206(70.1)

비장애 노인 집단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90명(35.0%), 국민연금 27명(10.5%), 가족이나 친구 24명(9.3%), 기초생활 보장비 17명(6.6%) 순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 장애인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 152명(51.7%), 기초생활 보장비 43명(14.6%), 장애연금 31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노령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의 지출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146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의료비용은 143,363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이외에 몸이 불편한 곳이 있는가의 질문에서도 81명(34.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장애 노인의 경우 의료비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빈도분석을 통한 결과 있다가 185명(72.5%)으로 나타났고, 평균 의료비용은 87,365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92명(35.8%)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질병으로는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다리 질병으로 나타

항목	구분	노령 장애인	50세미만장애인
장애등급	1급	53(22.7)	58(19.7)
	2급	65(27.9)	97(33.0)
	3급	51(21.9)	69(23.5)
	4급	18(7.7)	8(2.7)
	5급	15(6.4)	9(3.1)
	6급	16(6.8)	13(4.4)
	계	218(93.6)	254(86.4)
장애발생 시기	10세미만	78(33.5)	146(49.7)
	10-20세	11(4.7)	29(9.9)
	21-30	9(6.4)	34(11.6)
	31-40	15()	26(8.8)
	41-50	44(18.9)	해당없음
	51-60	39(16.7)	해당없음
	61세 이상	20(8.6)	해당없음
	모르겠음	10(4.3)	22(7.5)
계	226(97.0)	271(92.8)	
장애발생 원인	선천적	32(13.7)	88(29.9)
	질병	80(34.3)	68(23.1)
	교통사고	26(11.2)	20(6.8)
	산업재해 및 사고	39(16.7)	40(13.6)
	원인불명	23(9.9)	27(9.2)
	노령	10(4.3)	해당없음
	기타	16(6.9)	26(8.8)
	계	226(97.0)	269(91.5)

노령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조사응답자 218명중 2급이 65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1급이 53명(22.7%)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3급도 51명(21.9%)으로 나타나 장애가 중증임을 보여주고 있다. 50세미만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은 10개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반 정도를 차지하여 117명(50.2%)이며, 그 다음이 청각·언어장애로 35명(15.0%), 시각장애가 33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로는 지체와 뇌병변 장애 등의 중복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발생 원인은 질병이 80명(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업재해 및 기타 사고 39명(16.7%), 그 다음이 선천적 32명(13.7%), 교통사고 26명(11.2%), 원인불명 23명(9.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 비율이 8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원인 중 후천적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장애발생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226명이 응답하였는데 조사응답자 중 10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것은 78명(33.5%)이었으며, 40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103명(45.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의 발생시기가 40세 이후의 중고령(52.3%)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박혜전(2003)의 연구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6)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5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체장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정신지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 유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발생시기에 따른 분포에서는 노령 장애인의 경우 40세 이상에서의 장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10세 미만의 비율과 20세까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연령증가에 따른 장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가설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건강과 노동의욕, 심리·사회적 지지 및 직업준비가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를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으로 일련의 종속관계를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다.

1) 연구의 타당성 분석

구성개념들은 다항목(multi-item)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개념에 대하여 총합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구성개념간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 예측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인 종속변수인 취업욕구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사회참여와 자신과 삶에 대한 향상감이었다.

14개의 취업욕구 하위 측정요인들 대부분은 개념간의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개념간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양호와 적절한 조절, 비정형화 간에, 사회적 지지와 취업적 지지간에 음(-)의 방향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은 취업에서의 적절한 조절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과 정형화 된 취업형태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이 곤란하면 할수록 적절한 조절이나 비정형화 된 형태의 취업적 지지가 필요시 되지만, 건강정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상에 맞는 적합한 취업형태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표 5> 구성개념간의 상관

	건강양호	취업희망	취업적 지지	적절한 조절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비정형화	열망	의향 및 역량	직업결정 행동	직업 이해	사회 참여	향상감	경제적
건강양호														
취업희망	.192***													
취업적 지지	.088*	.293***												
적절한 조절	-.085*	.156***	.424***											
정서적 지지	.325***	.363***	.333***	.194***										
사회적 지지	.013	.038	-.010	.040	.199***									
비정형화	-.099*	.030	.211***	.277***	.088*	-.040								
열망	.366***	.553***	.375***	.222***	.600***	.095***	.104***							
의향 및 역량	.151***	.474***	.441***	.246***	.458***	.094**	.136***	.670***						
직업결정 행동	.191***	.296***	.221***	.177***	.450***	.135***	.188***	.573***	.386***					
직업이해	.150***	.303***	.263***	.224***	.423***	.082*	.198***	.604***	.492***	.747***				
사회참여	.200***	.470***	.405***	.261***	.459***	.021	.126***	.615***	.582***	.443***	.488***			
향상감	.170***	.379***	.469***	.247***	.480***	.062	.159***	.592***	.608***	.486***	.489***	.800***		
경제적	.069	.341***	.331***	.193***	.319***	.028	.122**	.457***	.546***	.331***	.396***	.567***	.612***	

* $p < .05$, ** $p < .01$, *** $p < .001$

2) 연구의 가설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두 개의 외생 잠재변인(exogenous latent variable) 즉, 건강(ξ_1), 심리·사회적 지지(ξ_2)와 세 개의 내생 잠재변인(endogeneous latent variable) 즉 노동의욕(η_1), 직업준비(η_2), 취업 욕구(η_3)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된 14개의 관측변인(observed variable) 즉, 건강양호(x1), 취업희망(x2), 취업적 지지(x3), 특별한 조절(x4), 정서적 지지(x5), 사회적 지지(x6), 비정형화(x7), 열망(y1), 취업의향 및 역량(y2), 직업결정행동(y3), 직업에 대한 이해(y4), 사회에의 참여(y5), 자신과 삶에 대한 향상감(y6), 경제적 욕구(y7)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분산-공분산 행렬(variance-covariance matrix)을 이용하여 LISREL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배제하고 취업욕구가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네 가지의 주요한 예측변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모형으로서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2와 같다. 분석에서는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

하였으며, 결과에서 보면 건강이 직업준비로 향하는 경로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이 노동의욕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높은 값을 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살펴보면 카이스퀘어와 자유도는 적절한 값으로 나타났다($\chi^2=55.243$, $df=45$, $p=0.141$). 또한 기초 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90, 조정 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는 0.977, 기준 적합도 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0.989, 그리고 비교 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98로 조사되었다. LISREL 검증이 제공한 적합도(Goodness of Fit Statistics) 지수들을 정리한 것은 표 6이다.

<표 6> 연구가설 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구분	X ²	df	p-value	RMSEA	GFI	NFI	CFI	AGFI
권장수준	-	-	>.05	>.05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연구모형	55.243	45	0.141	0.017	0.990	0.989	0.998	0.977

이와 같이 실용적인 적합도를 나타내어 주는 지수들이 모두 .90을 상회함으로 제시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덧붙여 근사원소 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도 0.017로서 .05의 기준보다도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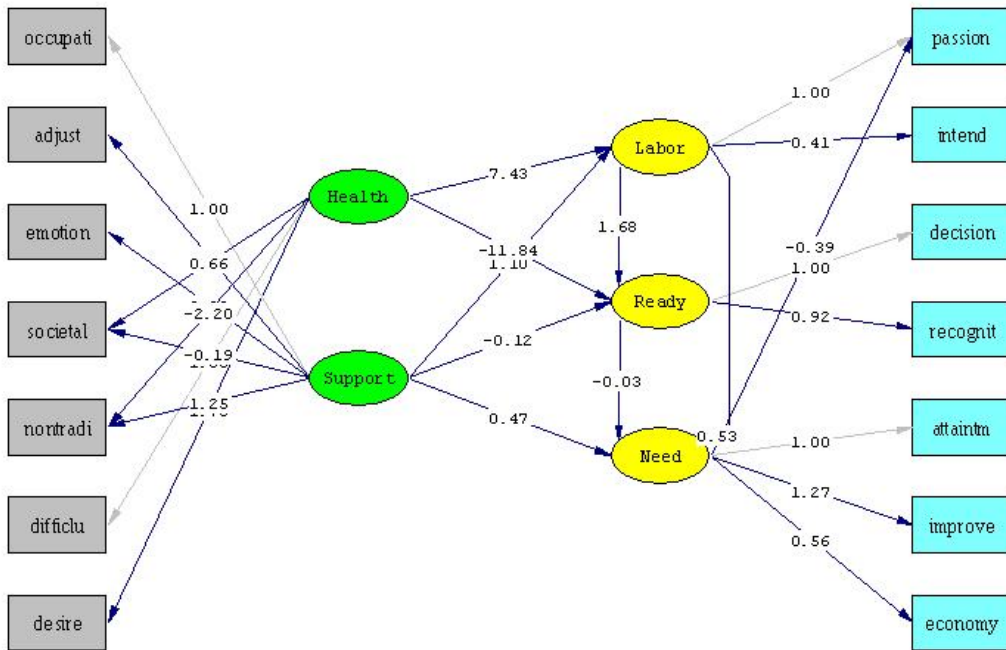
마지막 기준으로, 연구모형에 지정된 내생변인과 외생변인간, 외생변인과 외생변인간의 관계를 그 추정계수를 통해 살펴보는 것인데, 관계가 설정된 총 아홉 개의 경로 가운데 6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가설 결과에 대한 경로계수와 t값($t > \pm 1.9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가설검증인 건강수준에서는 건강요인이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경로계수 7.43, t값 4.330)과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경로계수 -11.84, t값 -3.23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건강수준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두 번째의 가설검증에서는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경로계수 1.10, t값 2.579)과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경로계수 0.47, t값 2.20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경로계수 -0.12, t값 -0.176)은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인 노동의욕에 관한 가설에서는 노동의욕이 직업준비(경로계수 1.68, t값 5.982)와 취업욕구(경로계수 0.53, t값 9.064)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네 번째 직업준비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가설은 기각(경로계수 -0.03, t값 -0.547)되었다.



Chi-Square=55.26, df=45, P-value=0.14051, RMSEA=0.017

- | | | |
|-------------------|-------------------------|---------------------|
| difficlu : 건강양호 | societal : 사회적지지 | recognit: 직업이해 |
| desire : 취업희망 | nontradi: 비정형화 | attainm: 사회에의 참여 |
| occupati : 취업적 지지 | passion: 열망 | improve: 자신과 삶의 향상감 |
| adjust : 적절한 조절 | intend: 일하고자 하는 의향 및 역량 | economy : 경제적 욕구 |
| emotion : 정서적 지지 | decision: 직업결정행동 | |

<그림 2> 연구가설의 LISREL모형 경로도

각 예측변인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관계를 분석했을 때, 아홉 개의 예측변인들 중 6개가 유의한 전체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건강, 심리·사회적 지지요인, 노동의욕 요인이었다.

건강요인의 경우 노동의욕과 직업준비에 가설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의욕을 통해서 취업욕구에 대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업준비요인도 취업욕구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 심리·사

회적 지지, 노동의욕이 직업준비와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다섯 개의 요인은 취업 및 재취업 욕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노령 장애인의 연구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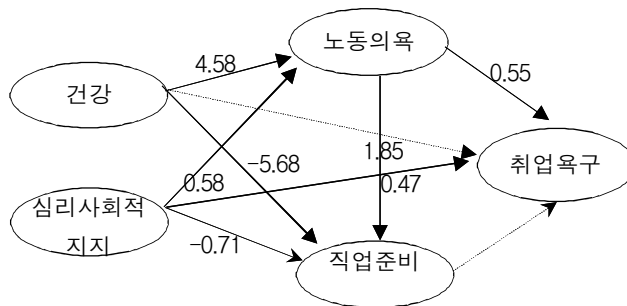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집단별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고, 모형 경로도는 그림 3과 같다.

노령 장애인 집단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살펴보면 카이스퀘어와 자유도는 적절한 값으로 나타났다($\chi^2=55.586$, $df=54$, $p=0.415$). 또한 기초 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0.968, 조정 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는 0.938, 기준 적합도 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0.965, 그리고 비교 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99로 조사되었다.

<표 7> 연구가설 모형의 적합지수 결과

구분	χ^2	df	p-value	RMSEA	GFI	NFI	CFI	AGFI
권장수준	-	-	>.05	>.05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연구모형	55.586	54	0.415	0.00	0.968	0.965	0.999	0.938

이와 같이 실용적인 적합도를 나타내어 주는 지표들이 모두 .90을 상회함으로 제시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 노령 장애인 집단의 연구가설 모형 경로도

다음은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H1 건강수준에 대한 가설 검증

H1-1 건강수준이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4.985로서 채택

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4.58이다.

H1-2 건강수준이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2.539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5.68이다.

H1-3 건강수준이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H2 심리·사회적 지지에 대한 가설 검증

H2-1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3.488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0.58이다.

H2-2 심리·사회적 지지는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2.218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0.71이다.

H2-3 심리·사회적 지지는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3.304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0.47이다.

H3 노동의욕에 대한 가설 검증

H3-1 노동의욕은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4.426으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0.47이다.

H3-2 노동의욕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3.889로서 채택되었다. 경로계수 값은 0.5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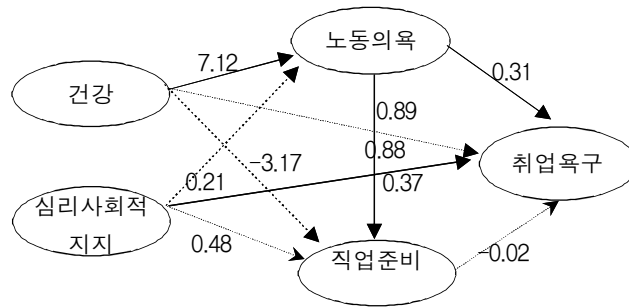
H4 직업준비에 대한 가설 검증

H4-1 직업준비는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t 값이 0.485로서 기각되었다.

각 예측변인이 취업욕구에 미치는 효과와 관계를 분석했을 때, 아홉 개의 예측변인들 중 7개가 유의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가설 검증결과 직업준비는 취업욕구를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강, 심리·사회적 지지, 노동의욕과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예측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장애 노인 그룹과 50세미만 장애인그룹의 연구모형 검증

비장애 노인 그룹의 경우 9개의 연구가설 모형 중 4개만이 채택되었으며, 50세미만 장애인 그룹의 경우 9개의 연구가설 모형 중 1개만이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가설 모형은 노령 장애인 집단에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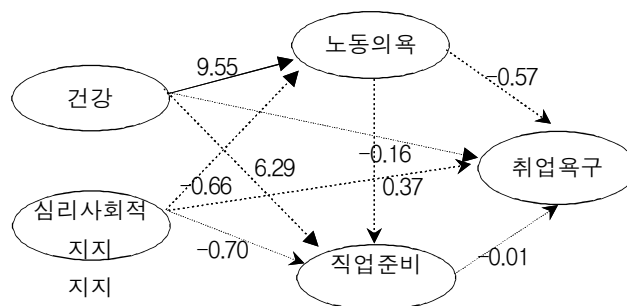


<그림 4> 비장애노인 그룹의 연구가설 모형 경로도

비장애 노인 그룹의 연구모형에서 건강요인은 노동의욕(경로계수 7.12, t값 3.840)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직업준비(경로계수 -3.17, t값 -1.151)와 취업욕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심리·사회적 지지요인은 노동의욕(경로계수 0.21 t값 0.758)과 직업준비(경로계수 0.48, t값 1.832)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욕구(경로계수 0.37, t값 3.419)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t > \pm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의욕은 직업준비(경로계수 .089, t값 2.597)와 취업욕구(경로계수 0.31, t값 4.656)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준비는 취업욕구(경로계수 -0.02, t값 -2.083)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50세미만 장애인 그룹의 연구모형 결과이다.

건강요인은 노동의욕, 직업준비, 취업욕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t값을 살펴보면 노동의욕은 $t=2.057$ (경로계수 9.55), 직업준비는 $t=0.989$ (경로계수 6.29), 취업욕구는 $t=1.619$ (경로계수 10.28)로 나타나 노동의욕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과 직업준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t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5> 50세미만 장애인의 연구가설 모형 경로도

따라서 본 연구가설 모형은 50세 이상의 노령 장애인 그룹에 가장 적절한 모형임이 검증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계속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구성이 점차 더 고령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노령 장애인의 비율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여 노령 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함의를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구성하는 요인은 총 5가지로 각각은 건강, 노동의욕, 심리·사회적 지지, 직업준비, 취업욕구이다. 이론적 모형을 구축으로 한 가설적 모형검증결과, 다섯 개의 척도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심리·사회적 지지, 노동의욕과 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에 취업욕구를 예측하는 변인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가설모형에서의 직업준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요인은 노동의욕과 직업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과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동의욕은 직업준비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지지는 노동의욕을 통해서 취업욕구에 간접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직업준비는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요인과 직업준비가 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건강요인은 노동의욕을 매개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의 곤란은 직업준비와 취업욕구에서 제한점을 가져다주지만 노동의욕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취업욕구에 간접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연구가설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취업욕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로 설정한 가설에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노령 장애인의 취업 및 재취업 욕구는 건강, 심리·사회적 지지, 노동의욕, 직업준비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정책결정 및 서비스에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에 대한 가설검증을 각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설정한 모형은 노령 장애인 그룹에서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노령

장애인의 취업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른 집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념적인 요인모형과 경험적인 요인모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개의 척도는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령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제도, 정책이 필요시 됨으로 사료되며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이 되는 노령 장애인의 취업희망, 취업욕구, 취업실태 등과 같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주기에서 건강한 노령기와 의존적 노령기의 기간도 연장되고 있으며, 경제적, 신체적 등에서 차이가 커져서 앞으로 노인집단은 훨씬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노령 장애인의 건상상태, 취업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시 되며 더불어 노령 장애인 개인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적 측면에서의 요인을 덧붙여 폭넓고 다각화된 요인들을 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와 같이 심도 있는 취업욕구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에 덧붙여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령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서 노령 장애인 개인측면에서만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욕구는 노동공급적 측면의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 더 잘 예측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전체적인 고려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노령 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노령 장애인의 연령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준고령자 이상으로 하였다. 노령 장애인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연령기준에 대한 추후의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배 (2003). 노인의 소득창출과 연계한 능력개발 방안. **한국노년학회 2003년 세미나 자료집 (고령화사회와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 83-102.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 류진혜, 김태성 (1998).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취업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16, 211-232.
- 박상철 (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혜진 (2003). **노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욕구와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변재관, 전학석 (1997). **장애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5).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 우혜봉, 윤인진 (2005).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 결정요인과 세대간 지원의 역할. **한국노년학회**, 25(2), 73-93.
- 윤순덕 (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달엽 (1997). **재활과학론**. 대구: 형설출판사.
- 이인수 (2004). **21세기의 노인복지론**. 서울: 대왕사.
- 장창엽 (1996). **장애인 취업준비체크리스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Abramson, J. H., Michal, R., Gofin, J., & Kark J. D. (1992). Work-health relationships in middle-aged and elderly residents of a Jerusalem community. *Social Science & Medicine*, 34(7), 747-755.
- Bishop, M. (2005). Quality of life and psychosocial adaption to chronic illness and acquired disability: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synthesis. *Journal of Rehabilitation*, 71(2), 5-13.
- Bosse, R., Aldwin, C., Levenson, M., & Ekerdt, D. (1987). Mental health differences among retirees and workers: Finding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Psychology and Aging*, 2, 383-389.
- Choi, G. (2001).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ost-retirement employment among older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2(1), 45-70.
- Dijkers, M.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M. J. Fuhrer(Ed.), *Assessing Medical rehabilitation practices: The promise of outcome research* (pp. 153-179). Baltimore, MD: Paul H. Brooks Publishing Co.
- Felce, D., & Perry, J.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51-74.
- Flanagan, J. C. (1978). A research approach to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American Psychologist*, 33(2), 138-147.
- Harley, D. (2003). *Rehabilitation and mental health practices for an aging population in the U.S* - Editor's Comment - Editorial.
- Irene H. Yen et al. (2001). *Two-way street: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employment in California, 1999-2000*.
- Larkin. V. M. (2003). Underrepresented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aging populations with disabilities: trend and recommendations: Rehabilitation and underrepresented aging populations. *Journal of Rehabilitation*, 69(2), 26-31.
- Longitudinal Stud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 (2003). *User's guide*. Retrieved January 2, 2002, for the Cornell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Web site: <http://www.ilr.cornell.edu/ped/lsvrsp/UsersGuide.cfm>.
- Maarten L., & Marcel, K. (1999), *Health and work of the elderly: Subjective health measures, Reporting Errors and the Endogenous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Work*, Proceeding.
- Mirowsky, J., & Hu, P. (1996). Physical impairment and the diminishing effects of income. *Social Forces*, 74(3), 1073-1096.
- Murphy, O., & Williams, J. (1999). *Assessment of rehabilitative and quality of life issues in Boca Raton*, FL : CRC Press.
- Mutchler, J. E., Burr, J. A., Massagli, M. P., & Pienta, A. (1999). Work Transitions and Health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54B(5), S252-S261.
- Myers, J. E. (1998). *Combating ageism: The rights of older adults*. In C. C. Lee & G. R.

- Walz(Eds.), Social action: A mandate for counselors(pp. 137-160). Alexandria, VA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Norman, H. C. (2003). Pro-Work Strategies for Older Workers with Disabilities: A Disability Management Approach. *The Aging American Workforce: The Impact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15th Mary E. Switzer Memorial Semina* (pp. 22-30).
- Rancho Los Amigo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2001). *Aging with disability*. Retrieved July 25, 2002.
- Reitzes, D. C., Mutran, E. J., & Fernandez, M. E. (1996). Does Retirement hurt well-being?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retirees and workers. *The Gerontologist, 36*(5), 649-656.
- Rowe, H. A. (1995). *Work readiness profile manual*. The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Ltd.
- Sigelman, C., & Shaffer, D. (1995). *Life-Span Human Developme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
- Vaillant, G., & Mukamal, K. (2001).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Zaura, A., Beier, E., & Cappel, L. (1977). The dimensions of life quality in a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1), 85-97.
- Zhan, L. (1992). Quality of Life: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795-80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Needs Amo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Park, Hye-Je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needs amo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s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preparing rehabilitation and welfare polici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effect of employment needs among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o predict a path model establish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Hypothetical path models established by current researcher were examined using linear multiple regression methods and the LISR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Verifying the hypothetical path model, it showed that the model was appropriate and statistically sound and could predict the employment need. Furthermore, the model was best fitted to and could predict the employment need more highly because the goodness of fit index in the whole model was within the allowed range. In conclusion, the following research implications can be suggested. First, due to the number of increasing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required that the rehabilitation counselors focus on the magnification, the construction and the provision of social supports as an instrumental infra for vocational functioning among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Second, further studies should focus on the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the personal character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the labor market and studies concerning rehabilitation of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aging,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employment need.

논문 접수: 2007. 4. 12 심사 시작: 2007. 5. 10 게재 확정: 2007. 6. 25